

11.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1)

— < 보 기 >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A	B
불규칙 활용	C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축약 | A | C |
| ② | 탈락 | B | A |
| ③ | 탈락 | C | B |
| ④ | 교체 | B | C |
| ⑤ | 교체 | C | B |

12.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한 것 아는 것은?2)

— < 보 기 > —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 ① 입학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납달랐다.
-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 ④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알은척을 했다.
-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아는 것은?3)

— < 보 기 > —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뿐 이어서 홀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홀문장이 결합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와/과’는 접속 조사로,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한편, ‘와/과’는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나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처럼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 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이 면 홀문장이 된다.

- ①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 ② 그녀는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 ③ 고향의 산과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 ④ 성난 군중이 앞문과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 ⑤ 그 사람과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14.<보기>를 바탕으로 ‘속’과 ‘안’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아는 것은?4)

— < 보 기 > —

ㄱ. 건물 {속/안}으로 들어가다.
 ㄴ. 한 시간 {*속/안}에 돌아올게.
 ㄷ. 병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속/*안}을 씹었다.
 ㄹ. 오랜만에 과식했더니 {속/*안}이 더부룩하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 {*속/안}의 일을 훤히 안다.
 ㅁ. 걸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겁을 먹었다.
 어제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온종일 집 **안**에 있었다.
 *는 부자연스러운 쓰임

- ① ㄱ을 보니 ‘속’과 ‘안’은 ‘사물이나 영역의 내부’라는 공통 의미를 지닌 유의어로군.
- ② ㄴ을 보니 ‘속’과 달리 ‘안’은 시간적 범위를 한정할 때 쓰이는 군.
- ③ ㄷ을 보니 ‘안’과 달리 ‘속’은 관용구에 사용되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군.
- ④ ㄹ을 보니 ‘속’은 추상적인 대상, ‘안’은 구체적인 대상의 내부를 가리키는군.
- ⑤ ㅁ을 보니 ‘속’은 ‘걸’, ‘안’은 ‘바깥’과 각각 반의 관계에 있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1번 (2016년 3월 시행)
 2)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2번 (2016년 3월 시행)

3)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3번 (2016년 3월 시행)
 4)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4번 (2016년 3월 시행)

15. <보기>는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일부이다. <보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5)

〈 보 기 〉

-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

- ①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 ②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 ③ 그 복지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다.
- ④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 ⑤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11. <보기 1>은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6)

〈보기 1〉

선생님: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발음 생활뿐만 아니라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고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ㅌ), ㄴ(ㄴ, ㄷ, ㅌ, ㅎ), ㄹ(ㄹ, ㄹ,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ㅣ, 약,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보기 2〉

뿔이다, 웃어른, 굳이, 집일, 색연필

- ① ‘뿔이다’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② ‘웃어른’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③ ‘굳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④ ‘집일’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 제18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⑤ ‘색연필’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5)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5번 (2016년 3월 시행)
6) 2016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1번 (2016년 4월 시행)

12.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7)

〈 보 기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① ‘다듬이’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② ‘마개’를 ‘막애’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③ ‘삼밭이’를 ‘삼바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④ ‘귀머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⑤ ‘뿔개’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8)

하다01

① 「동사」 【...을】

- ①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룬다.
 ▶ 운동을 하다. / 사랑을 하다.
- ② 먹을 것, 입을 것, 빨감 따위를 만들거나 장만하다.
 ▶ 나무를 하다. / 밥을 하다.
- ③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짓거나 나타내다.
 ▶ 어두운 얼굴을 하다.

② 「보조동사」

- ①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
 ▶ 숙제를 하게 하다. / 노래를 부르게 하다. / 몸을 청결하게 하다.

-하다02 「접사」

-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운동하다. / 사랑하다.
-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건강하다. / 순수하다.
- ③ (의성·의태어 이외의 일부 성상 부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달리하다. / 빨리하다.
- ④ (몇몇 의존 명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체하다. / 적하다. / 똌하다.

- ① ‘하다01①’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겠군.
- ② ‘하다01②’는 ‘하다01①’과는 달리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 사용되겠군.
- ③ ‘-하다02’는 앞 단어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겠군.
- ④ ‘하다01①②’의 용례로 ‘새 옷을 한 벌 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물에 빠질 뻔하다.’의 ‘뻔하다’는 ‘-하다02②’의 용례라고 할 수 있겠군.

7) 2016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2번 (2016년 4월 시행)
8) 2016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3번 (2016년 4월 시행)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

< 보 기 >

㉠ ┌──────────┴──────────┐ ┌──────────┐ ┌───┐ 나는 ┌───┐ 기다렸고 └───┘ └──────────┘ └──────────┘	㉣ ┌──────────┴──────────┐ ┌──────────┐ ┌───┐ 동생은 ┌───┐ 책을 읽었다. └───┘ └──────────┘ └──────────┘
---	---

- ① ㉠은, ㉡과 ㉢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② ㉡은, '나는'의 서술어인 ㉢을 안고 있다.
- ③ ㉡과 ㉣은, 각각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④ ㉢과 ㉣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난다.
- ⑤ ㉣은, '책'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면서 ㉢에 안겨 있다.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보기 1>

선생님: 담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를 일치시켜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명령이나 요청 등과 같이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화자의 의도와는 다른 종결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기', '만', '좀'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보기 2>

어머니: (지연을 토닥이며) ㉠저기, 지연아 이제 좀 일어나라.
지 연: (힘없이 일어나며) ㉡엄마, 선생님께 학교에 조금 늦을 거 같다고 전화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 아프니?
지 연: 네, 그런 것 같아요. 열도 좀 나고요.
어머니: ㉢그럼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엄마랑 병원에 가자.
지 연: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소 연: (거실에서 큰 소리로) 지연아, 학교 늦겠다. ㉣빨리 가라.
어머니: 소연아! ㉤동생이 아프다니까 조금만 작은 소리로 말해 주면 참 좋겠다.

- ① ㉠: 명령의 의도를 '저기', '좀' 등의 언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고 있군.
- ② ㉡: 요청의 의도를 의문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군.
- ③ ㉢: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켜 청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군.
- ④ ㉣: 화자의 명령에 대한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군.
- ⑤ ㉤: 명령의 의도를 평서형 종결 표현과 '만'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군.

9) 2016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4번 (2016년 4월 시행)
 10) 2016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5번 (2016년 4월 시행)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11)

< 보 기 >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옮겨서] 밥을 먹었다.
- ㉡ 그녀는 내 말을 굳이[구지]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임문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 ㉣ 나는 말을 더듬지[더듬찌]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 그는 듬직한[듬지칸]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굵기다, 급하다 ② ㉡의 예: 미닫이, 뺨대다
- ③ ㉢의 예: 집문서, 만누이 ④ ㉣의 예: 껌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굵하다, 한여름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 보 기 >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 ① '국수란도 먹으렴.'에서의 란도
-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든 보았다.'에서의 든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에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 (선생님과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 (아버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11)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1번 (2016년 7월 시행)
 12)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2번 (2016년 7월 시행)
 13)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3번 (2016년 7월 시행)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 【…에】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목적지에 이르다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결론에 이르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② 【…을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한다. ㉠이를 도루묵이라 이른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그는 어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 ① '이르다¹①'과 '이르다²②'의 유의어로 '다다르다'가 있겠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③ '이르다¹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불규칙 활용을 하겠군.
- ④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³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겠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15)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 나이가 많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 나이가 크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①
- 조사의 쓰임이 잘못된 경우
 ㉠ 우리는 아버지에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우리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 집에 가던지 학교에 가던지 해라.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④
-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
 ㉠ 그녀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
 →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⑤

14)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4번 (2016년 7월 시행)
 15)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5번 (2016년 7월 시행)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6)

— <보 기> —

[중세 국어]
 나라히 과망(破亡)흐니 :과:과 ㄱ:롭:썸 잇고
 ·갓·앗 보·릭 ·플·와 나모:썸 가:썸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눅:므를 썸·리게 ·코
 여·희여:슈를 슬:후니 :새 ㄹ:스·물 :놀:래:는다
 봉화(烽火)] :석:드:를 나:세:시:니
 자:빛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 ① '보·릭'은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썸·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ㄹ: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ㅅ', '·'가 사용되었군.
- ⑤ '드:를'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7)

[대화]
 학생 A : '벼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벼씨'가 아니라 '벼씨야'?
 학생 B : 그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ㄱ'이 'ㄴ'으로 바뀌어서 '살고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벼+씨→벼씨'에서 'ㅂ'이 생겨나는 이유는 'ㅂ>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ㅂ'의 어두에 'ㅂ'이 있었는데, 당시 '벼+ㅂ→벼ㅂ'이 만들어진 후 나중에 'ㅂ'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벼씨'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ㅂ>씨'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

16)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6번 (2016년 7월 시행)
 17)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1~15번

그러나 ㉠ 복합어 속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고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고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고기’ 외에도 ㉠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1.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

- ① 15세기 국어에서 ‘ㅂ’의 어두에 있는 ‘ㅂ’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 ② 15세기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 ③ 15세기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 ④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 ⑤ 현대 국어의 ‘살고기’에서 ‘ㅋ’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단어에 남아 있는 것이군.

12.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19)

- < 보 기 >
- a. 홑쓸다: ‘휘-’와 ‘쓸다’가 결합한 말인데, ‘쓸다’는 옛말 ‘쓸다’에서 온 말이다.
 - b. 햅쌀: ‘해-’와 ‘쌀’이 결합한 말인데, ‘햅’은 옛말 ‘밭’에서 온 말이다.
 - c. 수평: ‘수-’와 ‘평’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d. 안팎: ‘안’과 ‘밖’이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e. 들뜨다: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는 옛말 ‘뜨다’에서 온 말이다.

	㉠	㉡
①	a, b	c
②	a, e	c
③	a, b	d
④	b, e	d
⑤	a, b, e	c, d

18)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1번 (2016년 10월 시행)

19)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2번 (2016년 10월 시행)

13. <보기>의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

- < 보 기 >
-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 ㄴ. 언니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 ㄹ. 나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 ㅁ.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 ① ㄱ과 ㄴ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③ ㄴ의 안긴문장은 ㄷ의 안긴문장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④ ㄷ과 ㅁ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각각의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ㄹ과 ㅁ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20)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3번 (2016년 10월 시행)

14. <보기>를 바탕으로 ㄱ~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1)

————— < 보기 > —————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 아니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선생님의 설명: 제15항 [붙임 2]에서 설명하는 어미 ‘-오’는 하오체 종결 어미입니다. 이 어미 ‘-오’는 [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이오’로 활용할 때, ‘차(車)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 ‘차이오→차요’와 같이 ‘-이오’가 ‘-요’로 줄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오’가 줄어든 형태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그 형태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 봅시다. 단, ㄱ과 ㅁ은 모두 말하는 도중에 상대 높임의 등급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 ㄱ. 이것은 들판이오, 저것은 하늘이오.
- ㄴ. 선배: 고향이 어디니? / 후배: 서울오.
- ㄷ. (고향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 부산이오.
- ㄹ. 무얼 좋아하시오? 소설이오? 아니면 영화요?
- ㅁ. 무얼 좋아하세요? 소설요? 아니면 영화요?

- ① ㄱ의 밑줄 친 ‘이오’는 [이요]로 발음할 수 있다.
- ② ㄴ의 밑줄 친 ‘요’를 ‘이요’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 ③ ㄷ의 밑줄 친 ‘부산이오’는 하오체 문장에 해당한다.
- ④ ㄹ의 밑줄 친 ‘요’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이오’가 줄어든 형태에 해당한다.
- ⑤ ㅁ의 밑줄 친 ‘요’는 둘 다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21)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4번 (2016년 10월 시행)

21.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22)

————— < 보기 > —————

크다 [커, 크니]
 [I]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키가 크다.
 [II]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키우다 […을] [키우어(키워), 키우니]
 크다 [II]의 사동사

- ① ‘크다’[I]과 ‘크다’[II]는 별도의 품사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겠군.
- ② ‘크다’[I]과 ‘크다’[II]의 반의어로는 모두 ‘작다’가 가능하겠군.
- ③ ‘크다’[I]의 용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크다’[II]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군.
- ⑤ ‘크다’와 ‘키우다’는 모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끝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22)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영역 15번 (2016년 10월 시행)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정답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2016년 3월 시행)
11.③ 12.①또는③ 13.⑤ 14.④ 15.①
2016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2016년 4월 시행)
11.④ 12.④ 13.⑤ 14.② 15.④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2016년 7월 시행)
11.③ 12.⑤ 13.④ 14.③ 15.① 16.①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2016년 10월 시행)
11.③ 12.③ 13.④ 14.② 15.④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